

책 대신 골라 드립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서점에 깔린 책만 해도 수만 권, 여기에 매일 수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온다. 고민이 쌓이는 요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도서발굴단에게 물었다. 고양특례시 사서들이 미리 읽고 엄선한 추천도서를 소개한다.

GOYANG PUBLIC LIBRARY

도서발굴단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특례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튜브

저자 손원평 | 출판 창비
#천사소녀_담정너가_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주인공은 우연히 TV에 출연한 천재 CEO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결국,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모두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고 말해주고, 살아갈 힘은 온전히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듯하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 튜브를 타고 '나'를 생각해 보자.

“ 실패한 내 인생도 다시 떠오를 기회가 있을까? ”
마음가짐이나 결심처럼 막연한 것보다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신체의 무언가를 먼저 바꾸어야 할 것 같다.



19호실로 가다

저자 도리스 레싱 | 출판 문예출판사
#디카페인_유자차가_추천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 아빠라는 새로운 역할로 살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느덧 점점 작아지고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막상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고 그냥 흘러버린다.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만의 '19호실'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좋겠다.

“ 하지만 뭔가를 이해한다면 ”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
용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는 것이다.



독립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

저자 이영란 | 출판 채문서
#휘귀친구_마라탕이_추천합니다

최근 독립에 대한 충동이 있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독립만 하면 어엿한 어른이 될 것 같고 작은 방 하나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독립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일단 몸 빌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부터가 쉽지 않으리. 이 책 저자의 독립에 대한 경험은 독자를 위한 따뜻한 조언일 텐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저자에게 혼이 나는 기분이 들었다. 아마 독립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뜨끔했던 것 같다.

“ 하루 종일 가사 노동에 시달리던 엄마가 ”
선택한 일상의 작은 여유와 위로. 그것이 바로 인스턴트커피 한 봉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저자 백정연 | 출판 유유
#지옥의_공리주의자가_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몰랐다. 발달 장애인에게는 눈치껏 학습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식사중이라고 해도 자기는 밥을 다 먹었다며 통화를 이어가려는 것,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주는 것, 초면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의 대처 방법을 몰랐다.

'답장하지 않으면 상처받겠지...' 배려하고 대하다가 지치고 말았다. 다들 편한 곳에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매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조금씩 지쳐갔다. 그 당시 나의 기분을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 통화 가능하지 물어봐 주세요. ”
하루에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런 표현은 부담스러워요.